

조기교육(사교육), 영재교육 및 조기 유학의 효과에 대한 조사

1. 조사 배경

우리는 성공을 위해 남들보다 빠르게, 더 많이 교육을 받거나 경험의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의 교육, 생활, 행동 등에서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인과론), “결과를 보니 어떻게 했는지 알겠다”(결과론), “노력하면 성공하는 거야”(노력만능론), “남들은 다 하는 데 너는 왜 안해?”(집단동일론) 등 타인과 같아지거나 경쟁적 우위를 가지려는 욕심으로 인해 자의든 타의든 교육을 강요받기도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나라는 능력만 된다면 조기교육(사교육), 영재교육 혹은 조기 유학의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사실 유아기 혹은 초등학교 시절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동에서 조기교육 혹은 영재교육은 매우 가치가 있는 교육이 된다. 유아기, 초중고 학생의 조기교육(사교육), 영재교육 및 조기유학의 기회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성공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조기교육(사교육), 영재 교육 및 조기유학은 필요한 것일까?

1990년 11월호 <생활기획/조기교육의 방법과 실제3

평범한 내 자녀, 영재로 키우고 싶다

요즘 전국적으로 '조기교육' '영재교육'이다 해서 치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자신은 아무리 극성 부모가 아니라고 우겨도 아이를 몇 군데 학원에 내보는지 세어보면 '역시 많구나'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영재라는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선생님 이 되어 꾸준히 도와 주어야 한다는데... 특히 0세~3세까지의 유아기 교육이 영재교육의 80% 이상을 책임지게 된다. 자신의 자녀를 참다운 의미의 영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아이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두돌 밖에 안된 애가 노래 란 노래는 못 따라 하는 게 없구요.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가끔은 제가 도저히 못당할 정도 라니까요""클쵸, 우리 아이는 옆 집 순미보다 두 달이나 늦게 피아노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보다 훨씬 진도가 빠르다고 선생님이 야단이에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는군요. 그 방면으로 계속 키워야 할까 봐요"

여왕의 음악 Queen www.queen.co.kr

<https://news.joins.com/article/print/23410238>

[탐사J] “교육 난민 돼도 좋다, 초등 SKY캐슬 가자”

[중앙일보] 입력 2019.03.14 01:30 수정 2019.03.14 17:14

[교실이데아 2019] 초등 때부터 입시 위한 이주... '교육 난민' 자처

“연고가 특별히 없어 그런지 아직도 동네가 좀 불편하네요. 둘째 대학 갈 때까지만 눈 딱 감고 교육 난민 생활 하는 거죠, 뭐.”

좋은 학교 찾아 집 팔아 전세로
56학년 강남·목동·중계동 몰려
“학원 많고 특목고 SKY 잘 보내”
중계동 초등학교 따라 집값 3억차

그러나 조기교육(사교육), 영재교육 및 조기유학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 생활을 위한 놀이교육, 공동체 교육, 아동의 재능과 관계가 없는 교육은 아동의 신체적 성장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려서부터 받은 조기교육(사교육), 영재교육의 부작용은 없는 것일까?

2019-02-12 19:00



주입식교육 딜레마 속 떠오르는 놀이학습, 교육업계 스...



국내 교육 환경은 주입식 교육의 딜레마에 깊이 빠져 있다. 선행학습과 조기교육은 당연한 문화처럼 자리잡았고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후 집 대신 학원으로 향하기 바쁘다. 아직 한글을 다 못지 못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자유롭게 뛰놀기 바쁜 어린 아이들이 이처럼 주입식교육 시스템에 내몰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대학입시를 목표로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경제TV, 2019년 2월 12일자)

조기교육(사교육), 영재교육 및 조기유학은 부모의 욕심에 의해 강요된다. 아이의 순수한 재능을 위하기도 하지만 아이의 재능보다는 남들과 동일시하려는 부모의 욕심, 또한 남보다 경쟁적 우위를 갖도록 하는 부모의 욕심이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통계서비스(KEDI,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초중고 학생들 중 2017년 약 2.6천명, 2016년 1.8만 명이 조기유학을 떠났다.

학교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총계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유학자수	10,814	5,160	4,400	2,038	2,322	1,159	26,597
비중(%)	40.7	19.4	16.5	7.7	8.7	4.4	

이러한 교육의 열풍은 초중고의 사교육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책 혼란이 부른 역대 최대 사교육비...문 정부 또 하나의 뒷걸음

발행일 : 2019.03.12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인 29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정부가 사교육비를 조사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았다.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달라진 대입 정책과 오력가락해 온 직업계고 현장실습 정책 등 정책 혼란이 사교육을 부추긴 것으로 지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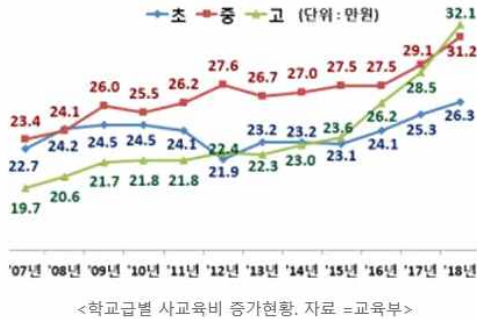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00억원(4.4%)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만9000원(7.0%) 늘어난 29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1486개교 학부모 4만여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인 3~5월과 방학이 포함된 7~9월 지출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다.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해 평균 통계가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지만 연간 추이는 비교할 수 있다.

전자신문 | etnews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8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의 72.8%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21.3만원,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7.6만원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는 교과 사교육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21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7.6%(1만5000원) 증가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7만6000원으로 5.8% 올랐다.

전자신문 etnews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모든 측면에서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71.2%) 대비 1.7%포인트(P) 상승했다.

이러한 국내의 교육현실에서 조기교육(사교육), 영재교육 및 조기유학, 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였고,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성공하였는지 확인을 통해 조기교육(사교육), 영재교육, 조기유학 및 사교육이 필요한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2. 조사목적

본 조사에서는 일반 국민(혹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기교육(사교육), 영재교육 및 조기유학에 대한 경험과 실태를 파악하고, 조기교육(사교육), 영재교육, 조기유학 및 사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 1) 조기교육(사교육), 영재교육 및 조기유학에 대한 조사
- 2) 조기교육(사교육), 영재교육 및 조기유학의 만족도 및 효과 조사
- 3) 조기교육(사교육), 영재교육 및 조기유학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3. 표본설계

3-1. 일반국민 대상 조사

- 목표모집단 : 국내 일반국민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조사모집단 :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성인을 제외한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군인, 도시지역 거주, 해외 거주 등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성인 제외)
- 모집단규모 : 만 19세 이상 인구(장래추계인구 기준, KOSIS, 통계청)

19세 이상	남자	여자
43,150,711	25,965,657	25,845,510

◦ 표본틀 : (기본)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명부(가구 추출 시 사용)

- (일반 면접조사) 동읍면의 통반
- (일반 전화조사) 유/무선전화번호(층화 추출은 KT, SKT, LGU+의 협조가 필요함)
 - 전화조사는 Random Digit Dialing(RDD)으로 추출하면 별도의 명부가 필요하지 않음.

◦ 표본크기

- 본 조사에서는 조기교육(사교육) 등의 경험을 파악하는 모비율과 교육 비용을 파악하는 모평균의 추정이 모두 가능한 조사이다. 본 조사에서는 조기교육(사교육) 등의 경험 파악이 더 중요하므로 모비율 추정 관점에서 필요한 표본크기를 산정하기로 한다.
 - 층별 추정을 목적으로 층화추출법을 적용한다면 (1) 층화추출법으로 표본크기를 결정하고 층별 표본을 배분하거나 (2) 층별 표본크기를 결정하여 모두 더해 표본크기를 결정해야 함. 이 경우 매우 많은 표본이 필요함.
- 본 조사의 모비율 추정에서 전국 단위 통계작성 시 95% 신뢰수준에서 추정오차한계 $\pm 3.1\%p$ 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표본크기를 산정한다.

$$n_0 = \frac{1.96^2(0.5 \times 0.5)}{0.031^2} \approx 999 \Rightarrow n = \frac{n_0}{1 + \frac{n_0}{N}} = 1000$$

- 본 조사의 모평균 추정에서 전국 단위 통계작성 시 95% 신뢰수준에서 추정오차한계 $\pm e$ 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표본크기를 산정한다.

$$m_0 = \frac{1.96^2 s_{\text{과거}}^2}{0.031^2} \Rightarrow m = \frac{m_0}{1 + \frac{m_0}{N}}$$

- 표본크기 결정 : 본 조사에서 95% 신뢰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표본크기는 모비율 추정을 위해 필요한 표본크기는 n 이고, 모평균 추정의 표본크기는 m 이므로 모비율과 모평균 추정을 위한 표본크기는 $n(>m)$ 으로 결정한다.

◦ 표본추출배분

- 본 조사는 전국단위의 통계를 생산하지만 모집단의 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표본을 배분하기로 한다. 표본은 비례배분(제공근비례배분, 네이만배분 등 가능)으로 한다.
(참고 : 지역별 일정 수 이상의 표본크기를 확보하기 위해 제공근비례배분으로 배분함)
- 지역별 19세 이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표본크기를 배분한다.
(참고 : 1차 추출단위를 고려하여 5 혹은 10의 배수로 조정하여 1차 추출단위의 수를 결정함)

◦ 표본추출과정

- 표본추출방법 : 3단계 층화계통추출법
 - 층화 변수 : 동읍면별 19-40세까지의 인구수 비율, 주택유형 등
(예: 19-40세 많은/적은 지역, 아파트/비아파트지역 등 지역별 4개 층 가능)

- 표본 추출 단위
 - 1차 추출단위 : (지역별) 동읍면
 - 2차 추출단위 : 표본 동읍면내에서 가구
 - 3차 추출단위 : 표본가구내에서 성인(접촉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3차추출은 생략)
- 계통추출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읍면내에서 가구명부 획득이 어렵거나 부정확하므로 명부상 전체가구수를 기준으로 계통추출하면 단순확률계통추출법의 효과와 동일하므로 계통추출로 표본가구를 선정함.

- 표본추출과정
 - 1차 표본 동읍면 추출 : 지역(17개 광역시도)별 4개 층마다 필요한 동읍면수를 단순확률추출법(혹은 인구순으로 정렬하여 계통추출법 적용)으로 추출
 - 2차 표본 가구 추출 : 표본으로 선정된 표본 동읍면에서 모집단 가구 수(M)를 파악하여 필요한 표본동읍면 수(m)를 고려해 추출 간격 $k(=M/m)$ 를 유지하면서 표본 가구를 추출(예 : 표본 추출은 주민센터를 기점으로 우측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통추출함)
 - 3차 최종 조사대상자 추출 : 표본 가구내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을 파악한 후, 생일법(혹은 KISH법)으로 최종 응답자를 선정.

3-2. 대학생 대상 조사

- 목표모집단 :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
- 조사모집단 :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하는 대학생
 - 모집단규모 : 만 19세 이상 인구(2018 교육기본통계, KOSIS, 교육개발원/교육부)

4년제 재학생수	남자	여자
2,030,033	1,188,225	841,808

- 표본틀 : (기본) 4년제 대학교 명부

◦ 표본크기

- 본 조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교육(사교육) 등의 경험을 파악하는 모비율과 교육 비용을 파악하는 모평균의 추정이 모두 가능한 조사이다. 본 조사에서는 대학생의 조기교육(사교육) 등의 경험 파악이 더 중요하므로 모비율 추정 관점에서 필요한 표본크기를 산정하기로 한다.
- 이하 일반국민대상 조사의 표본크기 결정을 참고하기 바람.

◦ 표본추출배분

- 본 조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단위의 통계를 생산하지만 모집단의 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표본을 배분하기로 한다(참조 : 일반국민 대상 조사).
- 지역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표본크기를 배분한다.
(참고 : 1차 추출단위를 고려하여 20 혹은 50의 배수로 조정하여 1차 추출단위의 수를 결정함)

◦ 표본추출과정

• 표본추출방법 : 2단계 층화(계통)추출법

- 층화 변수 : 4년제 대학의 설립유형 및 재학생 수

(예: 재학생이 5000명이상과 미만, 국공립/사립 등 지역별 4개 층 가능)

- 표본 추출 단위

- 1차 추출단위 : (지역별) 대학교

- 2차 추출단위 : 표본 대학교의 학생

(참고 : 학교별 전체 학생 명부 획득이 불가능하다면 2차 추출은 학과, 3차 추출은 표본학과의 학생으로 조정)

• 표본추출과정

- 1차 표본 대학교 추출 : 지역(17개 광역시도)별 4개 층마다 필요한 대학교 수를 단순 확률추출법(혹은 재학생 수의 순으로 학교를 정렬하여 계통추출법 적용)으로 추출

- 2차 표본 학생 추출 : 표본 대학교의 학생명부를 이름순으로 정렬하여 최종 응답자를 선정.

4. 조사내용

1) 조기교육(사교육), 영재교육 및 조기유학에 대한 조사

- 조기교육(사교육) 경험, 종류, 기간, 시작나이, 비용 등
- 영재교육 경험, 종류, 기간, 시작나이, 비용 등
- 조기유학 경험, 국가, 종류, 기간, 시작나이, 비용 등

2) 조기교육(사교육), 영재교육 및 조기유학의 만족도 및 효과 조사

- 조기교육(사교육), 영재 교육 및 조기유학의 속성별(내용, 방법, 기간, 교사 등) 만족도
- 조기교육(사교육), 영재 교육 및 조기유학의 속성별(내용, 방법, 기간, 교사 등) 효과
 - 교육 시점에서의 효과
 - 교육 후 효과 : 교육이후 효과의 지속 여부
(해당 교육분야에서의 인정 여부 혹은 평판)
 - 현재 효과/영향 정도 : 현재 생활/삶/대인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
 - (대학생 : 입학 입학의 효과 정도)

3) 조기교육(사교육), 영재교육 및 조기유학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 조기교육(사교육), 영재 교육 및 조기유학의 필요성 정도(혹은 찬성/반대 여부와 이유)
 - 필요/불필요 이유
- 조기교육(사교육), 영재 교육 및 조기유학의 추천 여부
 - (기혼자) 현재 자녀의 조기교육(사교육), 영재 교육 및 조기유학의 여부
 - (미혼자) 미래 자녀에 대한 조기교육(사교육), 영재 교육 및 조기유학의 추천 여부

4) 응답자 특성(괄호는 대학생 조사)

- 인구학적 특성 : 성, 연령 (학과, 학년)
- 사회경제적 특성 : 직업, 소득, 현재 생활 만족도